

안치홍 연봉 '대박' 200% 수직상승



2,000만원 → 6,000만원

팀 역대 타자 최고 인상을

신인답지 않은 멋진 수비를 선보였다. 마지막 7차전에서는 솔로포를 쏘아올리며 주경의 발판을 높였다.

안치홍은 “최고 인상을 계약을 하게 돼서 영광이다”며 “내년 시즌에는 출루율과 타율에 더 신경쓰며 팀 승리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는 ‘끝내기’ 주인공이 되는 것이 목표다. 안치홍은 “내년 시즌 극적 인 순간에 승리를 결정 짓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며 “올 시즌 두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던 만큼 10년 연속 두자릿수 홈런 같은 개인 기록에도 도전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치홍의 이웃사람도 계속된다. 안치홍은 시즌 중반 어린이재단과 후원 결연식을 맺고 안타와 도루 하나당 1만원을 적립해 기부했다.

내년 시즌에도 후원금을 적립하는 안치홍은 “후반기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많은 후원금을 전달하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렸다”며 “내년에는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기록은 2006년 이정규가 2천2백 만원에서 5천5백만원에 계약을 하며 세운 150% 팀 역대 투수 최고 인상을은 신용운과 이상화가 가지고 있는 200%다. 신용운은 2천7백만원에서 8천1백만원을 받았고, 이상화는 2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받았다.

안치홍은 올 시즌 123경기에 출장해 0.235의 타율로 14홈런 38타점 10도루를 기록했다. 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쥐지는 못 했지만 극적인 활약으로 KIA의 2009 시즌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울스타전에서 한방을 터트리며 MVP에 등극했던 안치홍은 한국시리즈 내내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문이다.

필라델피아를 떠난 박찬호의 진로는 8일부터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시작된 원터미팅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터미팅은 메이저리그의 각 구단 단장과 선수를 대신한 에이전트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를 한다. 원터미팅을 통해 각 팀은 전력보강을 위해 필요한 트레이드를 시도하고 새로운 선수도 영입한다.

필라델피아는 연봉조정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박찬호의 영입에 여전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 마무리 투수 브래드 리지가 팔꿈치 수술로 내년 초 등판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마무리 투수 등 불펜진 보강이 절실히 때 문이다.

미국 프로야구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이번 시즌 중간 계투로 주기를 높인 박찬호(36)가 내년 시즌에는 어떤 팀 유니폼을 입을지 관심이 솔깃하고 있다.

박찬호는 지난 2월(한국시간) 전 소속팀

인 필라델피아가 연봉조정신청을 하지 않아 본격적으로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뛰어들었다.

필라델피아는 박찬호에게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연봉조정신청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라델피아가 연봉조정신청을 하고 박찬호가 이를 받아들이면 필라델피아는 박찬호와 반드시 계약해야 하기 때



거대한 파도를 타며...

프로 서퍼 마쿠아 로드만이 하와이에서 열린 에디 아이카우 빅 웨이브 서핑대회에서 거대한 파도를 타며 환상적인 서핑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KLPGA '서희경 천하'



올 시즌 대상·상금·다승왕·최저타상 등 싹쓸이



서희경(23·하이트·사진)이 9일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하이마트 2009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 4개 주요 부문 상을 독차지했다.

서희경은 하이마트 국내 대상, 하이마트 상금왕, 김영주골프 다승왕, KJ골프 최저타수상을 휩쓸었다. 지난해 시상식에서는 신지애(21·미래에셋)가 주인공이었다면 올해는 스포트라이트가 서희경에 옮겨간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6승을 거두며 ‘신데렐라’로 급부상했던 서희경은 신지애의 독주에 밀려 2008년 시상식에서는 인기상 하나에 만족해야 했으나 올해는 5승을 일궈내며 주요 부문을 석권해 새로운 ‘지존’의 탄생을 알렸다.

김병찬 아나운서와 배경은(24·불박)이 사회를 맡아 골프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에이스회원권 신인상은 안신애(19·푸마)가 받았고 스포츠로토 인기상은 유소연(19·하이마트)에게 돌아갔다. 또 국외 대상은 신지애와 전미정(27·진로재팬)이 수상했다.

이날 서희경, 유소연, 이보미(21·하이마트), 임지나(22·코오롱·잭니클러슨) 등

올해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직접 출연해 살사댄스를 선보이는가 하면 안신애, 양수진(18·넵스), 이다솜(20), 조윤지(18·캘리웨이), 이수지(17·MUS포즈)의 ‘미스터’ 댄스가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순희



(42)는 시너이 상금왕, 조윤지는 드림투어(2부), 이수지는 점프(3부)투어에서 상금왕에 올랐다.

한편 KLPGA 소속 선수 26명이 참여해 이들의 2천250개 버디를 통해 적립된 580만원의 기금을 한국메이크어워시 재단에 기부하는 ‘희망나눔 버디기금 전달식’도 함께 열렸다. 이 기금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곳에 쓰일 예정이다. 권지은(16·충원고), 김지희(15), 김효주(14·이상 유틴관중), 유정민(15·한라중), 이근화(15·신흥중), 장수련(15·득량중)이 우수 아마추어 선수 장학금을 받았다.

/연합뉴스

정일미, 美기업과 후원계약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 군단의 맨언니 정일미(37)가 미국 컨설팅전문회사 앤프리시스와 후원계약을 맺었다. 정일미의 매니저 송영근씨는 “지난 6일 앤프리시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기업이 한국선수의 메인스폰서를 자청한 것은 처음”이라고 9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10년 1월1일부터 1년간이다.

/연합뉴스

최경주 - 슈페리어 의류협찬 3년 계약

‘탱크’ 최경주(39·나이키골프)가 슈페리어와 3년간 의류 협찬 계약을 맺었다.

슈페리어는 9일 “오늘 오전 강남구 대치동 슈페리어 본사에서 계약 조인식을 열었다”며 “계약 기간은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이고 계약 세부 내용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경주는 2010년부터 의류 전제에 슈페리어 로고를 부착하고 슈페리어는 모든 대회에 의상을 협찬하게 됐다. 또 ‘KJ choi GOLF & Sports’ 브랜드를 공동 런칭하기로 했다.

이 브랜드는 최경주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경험과 노하우, 슈페리어의 인프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드는 전문 골프-스포츠웨어로 2010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최경주와 슈페리어는 1996년부터 3년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2004년까지 전속 계약을 맺었으며 5년 만에 다시 인연을 맺었다.

/연합뉴스

박찬호 '새 등지' 어디에 틀까

원터미팅서 진로 윤곽

신지애 “저 예쁘죠”

신지애 선수가 9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찬 아나운서와 배경은(24·불박)이 사회를 맡아 골프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에이스회원권 신인상은 안신애(19·푸마)가 받았고 스포츠로토 인기상은 유소연(19·하이마트)에게 돌아갔다. 또 국외 대상은 신지애와 전미정(27·진로재팬)이 수상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 군단의 맨언니 정일미(37)가 미국 컨설팅전문회사 앤프리시스와 후원계약을 맺었다. 정일미의 매니저 송영근씨는 “지난 6일 앤프리시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기업이 한국선수의 메인스폰서를 자청한 것은 처음”이라고 9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10년 1월1일부터 1년간이다.

/연합뉴스

영 / 화 / 안 / 내

메가박스

1관	뉴문:트와일라잇2 (12세)	최고급관
2관	모범시민 (15세)	
3관	2012 (12세)	
4관	시크릿 (18세)	
5관	뉴문:트와일라잇2 (12세)	
6관	비상 (18세)	
7관	시크릿 (18세)	
8관	2012 (12세)	
9관	여배우들 (12세)	
10관	여배우들 (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현대국사거리 1층 1544-0600

* 이프온 즐거운 이용 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감상요금 부과

콜롬버스시네마

1관	모범시민 (15세)
2관	크리스마스캐롤 (12세) / 베이킹 (18세)
3관	뉴문:트와일라잇2 (12세)
4관	뉴문:트와일라잇2 (12세)
5관	비상 (18세)
6관	시크릿 (18세)
7관	2012 (12세)
8관	여배우들 (12세)
9관	여배우들 (12세)
10관	여배우들 (12세)

1588-7941 상당원면접 방법→(1번 or 2번)→0번

한토시영 영화사립 · 애매:www.joycbc.com/ 1588-7941

상무관 (상무청원과 어마트 사이) 하남관 (무역회관앞관)

하미시네마

1관	백아행 (18세) / 청담보살 (15세)
2관	여배우들 (12세)
3관	홍길동의 후예 (12세)
4관	시크릿 (18세)
5관	여배우들 (12세)
6관	닌자어째신 (18세)
7관	모범시민 (15세)
8관	뉴문:트와일라잇2 (12세)
9관	2012 (12세)
10관	여배우들 (12세)

고객사랑 고객감동 · www.hamilcinema.co.kr / 1588-9120

전대 후문 아미스포렉스 ☎ 267-7777

* 500여석 넘는 주관관(342석무인) * 305석 미입석 0원 * 500석 미입석 0원 * 500석 미입석 0원 * 500석 미입석 0원

* 미입석 0원 * 미입석 0원 * 미입석 0원 * 미입석 0원 * 미입석 0원

씨너스전대

1관	비상 (18세)
2관	시크릿 (12세)
3관	뉴문 (12세)
4관	백아행 (18세) / 뉴문 (12세)
5관	2012 (12세) / 닌자어째신 (18세)
6관	모범시민 (15세)